

기도

1. 여호와와 나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2.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 당대 문학 장르 중 하나였던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묵시문학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세상의 고난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종말의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심어 용기를 주는 문학 양식이다. 이러한 묵시문학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와 신구약 중간기에 많이 나타났다.



구역 공과

2022년 10월 2일

여호와와 나날을 준비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여호와와 날을 준비하라

요한계시록 8장 1-6절 (찬35장, 179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곱 째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불기 전 고요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언제 불릴지 모르지만, 나팔 이후는 돌이킬 수 없고, 극심한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요한 때에 여호와와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말씀입니다(1-2절).

하늘이 고요한 시간은. 첫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의 일곱 천사들은 일곱 나팔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2절). 이처럼 천사들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고요하고 잠잠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고요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요하게 있을 때, 마음속의 근심과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밀하고 고요한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시쯤 고요하다 했는데, 반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1절b). 아침 일찍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장들처럼, 고요한 새벽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셔서 지켜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요함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 길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이 고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봉사와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향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3-5절).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의미입니다(3절). 금은 믿음을, 향은 성도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성도가 믿음으로 행한 것과,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것, 잘하는 것 보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산제사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향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믿음의 행위는 나의 노력과 공로, 혹은 천사의 행위를 통해 상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상달됩니다(4절). 나의 수준과 환경, 드린 것의 양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구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명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응답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하셨습니다(호2:21).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6:16-18).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와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이 땅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예수님을 몰라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서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6절).

지금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고요한 때입니다(6절). 지금은 잠시 고요하지만 언제 나팔이 불릴지 모릅니다. 나팔은 구약 시대에 경고와 명령을 위해 쓰였는데, 이는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주님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을 믿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나팔이 불리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란이 오고, 기회가 사라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여호와와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고요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믿음의 기도와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명심하고 여호와와 날에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